

石에 美學 새기다... 깨달음 과정 투영

박주부 작가 '숲의 노래' 전 11월 30일까지 부산 흥법사서

목어 법륜 금강경 등 불교적 정서를 조각 작품에 투영시킨 특별한 전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조각가 박주부(한국석조조각예술인협회장)가 부산 흥법사 야외 잔디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고 11월 30일까지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불자 조각가로 보령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 작가는 깨달음에 대한 이미지를 조각으로 형상화해 생명력을 불어넣은 작품들을 선보여 주목된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박주부 특유의 기법으로 숲과 화두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 등을 작품 속에 투영시킨 것이다.

"집안에 형님이 출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교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많이 읽다 보니 불교적 소재가 영감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특히, 선지식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불교적 화두를 이미지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불교를 통해 진리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을 표현해 보았습니 다."

이번 전시는 크게 '숲의 노래'와 '깨달음의 노래'라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숲의 노래'는 목어와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목어는 숲 위에도 있고 산 위에도 존재하며 항상 깨어 있음을 상징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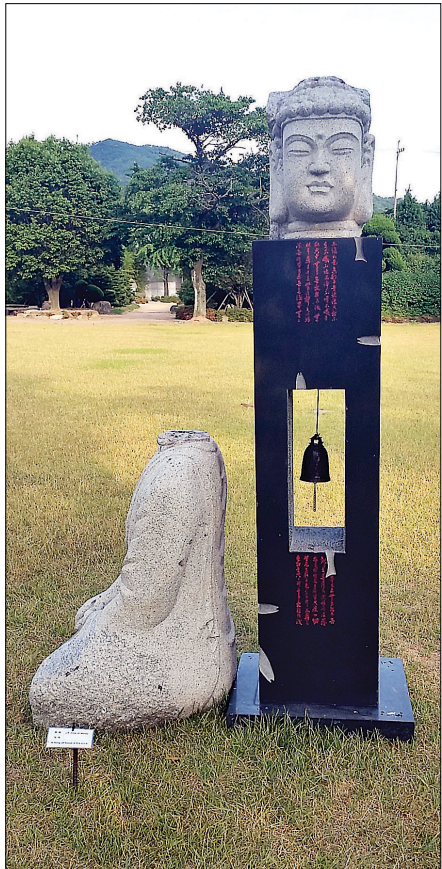
"불교에서 목어는 구도자를 상징하죠. 수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르는 기본적인



'숲의 노래', 피안의 세계로 향하는 구도자를 목어로 표현했다.

목어 법륜 등 불교적 소재
현대 조각 작품으로 승화
피안의 세계로 향하는
수행자의 구도행 그려내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속에서 길을 벗어날 때 이를 통해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부처님도 숲에서 수행을 하셨으니 숲은 안식처이자 수행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목어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작품을 바라보는 대상일 수도 있죠. 여기에 경전을 새겨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노래'는 목 없는 불상을 현대 조각으로 승화시켰다.

'깨달음의 노래'에서는 불상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작품이 눈에 띈다. 이는 경주박물관에 전시된 목 없는 불상에서 착안해 현대 조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기둥에 반사경을 새기고 그 안에는 풍경을 걸어 놓아 관람객들이 소리라도 경을 듣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 틈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는 깨달은

수행자가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 위로 올려진 불두는 부처님이 깨닫고 난 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셔서 당시의 깨달음을 나누었듯이 회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불자들이 그런 부처님의 삶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맺들의 형상을 딴 '법륜'도 인상적이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맺들은 윤회를 상징하죠. 그에 매달려 있는 물고기는 구도사님에게 고개를 내밀고 있으니 바로 그 윤회에서 벗어나기 직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 중간에는 6개의 유두를 새겼는데 보령의 성주사지 탐비(보물 20호)에서 착안한 것입니 다. 이는 열쇠가 아닌 열쇠를 의미하는데 화두의 틀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행자인 물고기가 이 문을 열고 화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의 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를 현대화된 조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는 작가는 12월에는 뉴욕전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박 작가는 불교 미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독교 등 이웃종교는 종교 미술이 많이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교 미술은 전통을 고수하다 보니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발전이 더디죠. 앞으로 불교계가 많은 불자 작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010-5429-0075

정혜숙 기자 bwj@hyunbul.com

만해 스님 생애와 작품 세계 조명

한국문인협회, 제1회 한국문학인대추전 개최 탄신 136주년 기념 강연과 포럼 등

광복 70주년을 맞아 만해 스님의 애국 애족정신과 문화정신을 기리는 '제1회 한국문학인대추전'이 열린다.

"민족시인 한용운의 생애와 작품세계"라는 부제가 붙은 이 행사는 한국문인협회 주최로 8월 29일~30일 서울 성북구 심우장 중심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선진구 한국문인협회 재정협력위원회 위원장(한국불교문인협회장)은 "8월 14일 문협이 재정협력 긴급회의를 갖고 스님 탄신 136주년을 맞아 8월 29일과 그 이튿날인 30일까지 한국문학인대추전의 날로 정해 각종 문화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 문인들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거처였던 서울 성북구 심우장을 중심으로 그 일원에서 한바탕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주요행사로는 △문인시대선언 △문학 포럼 및 강연 △만해시 낭송 △역대 전국 만해백일장 장원 입상자 작품 낭송회(대한불교청년회 주관) △노인대학 백일장 등이 개최된다.

선 위원장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시대정신을 계승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평소 열반일인 6월 29일 추모 행사가 이어져왔는데 탄신일을 맞아 여는 첫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만해시 낭송, 노인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탄신일을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02)744-8046

정혜숙 기자



한국문인협회는 만해 스님 탄신 136주년을 맞아 서울 성북구 심우장 일대에서 8월 29-30일 한국문학인대추전을 펼친다. 사진은 8월 14일 한국문인협회 긴급재정위원회 회의 후 임원진 기념촬영.

'의성의 불교문화'展 9월 20일까지

조문국박물관, 초조본 <불설가섭부불열반경> 등 전시

전국 각지에 흩어진 경북 의성의 불교 문화재가 한 자리에 모였다. 2015년 '의성의 불교문화' 특별기획전이 9월 20일까지 의성조문국박물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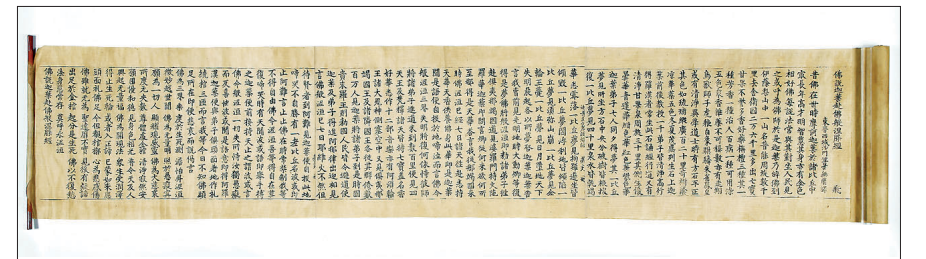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빙산사지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와 운암사·지장사 복장유물 그리고 의성의 8개 전통사찰에서 보관 중인 의성의 불교문화재 총 95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11세기에 제작된 운암사 아미타불 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현존 유일의 초조본 <불설가섭부불열반>

초조본 佛說迦葉赴佛般涅槃經, 보물 제1646호)의 성에서는 처음으로 전시되어 주목된다.

의성조문국박물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대 의성의 독자적이고 화려한 문화의 전통이 불교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의성 불교문화의 정수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054)830-6906

정혜숙 기자



운암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현존 유일의 초조본 <불설가섭부불열반>

여름철 장건강 사찰음식으로 지키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마죽 등 여름 메뉴 엄선

'약식동원(藥食同源)'은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동일하다'라는 뜻이다. 불교경전에서는 모든 음식을 약(藥)으로 칭하며,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자연적인 발효과정을 거쳐 만드는 사찰음식은 약리작용이 뛰어나다. 특히 한여름은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므로 비위와 대장에 병이 나기 쉬운 계절이다. 그렇다면 산사에서 권하는 여름철 사찰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여름철 약해지기 쉬운 장(腸) 건강을 지키는 사찰음식 메뉴를 엄선했다.

먼저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풍부한 마를 이용한 마죽을 들 수 있다. 마는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원기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어 한방에서도 자주 섭취할

것을 권한다. 마와 다식물, 소금만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리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예로부터 뿌리를 술에 찌서 갖가루와 깨로 고명을 얹은 마떡은 사찰의 건강 수행식이라고 한다.

삼삼한 마죽에 곁들여 먹으면 좋은 박속 된장무침도 여름철 건강식이다. 박을 고를 때는 손톱으로 눌러 쏙 들어가는 부드러운 박을 사는 것이 좋다. 박은 섬유질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 부기를 빼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된장, 참기름, 참깨가루, 다진 고추를 넣어 푹베기에 끓여내고, 된장이 식었을 때 박속을 넣고 살살 무치면 된다.

마지막으로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우는 매실장아찌가 있다. 껍질이 연한 녹색이고



마죽, 마는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원기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과육이 단단한 청매를 이용하여 장아찌를 만든다. 각종 유기산과 비타민이 함유된 매실은 피로 회복에 좋으며, 매실차는 살균·해독 작용이 뛰어나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어 여름철에 특히 좋은 음료다.

이 밖에 몸과 마음에 약이 되는 제철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산사의 조리법은 사찰음식 공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한여름의 시원한 팔빙수 같은 '불교드라마'

55부작 드라마 붓다

매주 수, 목요일 저녁 9시

재방 일 새벽1시, 오후3시 / 월~목 새벽1시 / 화, 수 오전9시

가족과 함께 시청하세요!

BTN 불교TV는 모든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71번, alleh HD 233번, B tv HD 555번, U TV 185번 | www.btn.co.kr | 케이블TV 채널안내 : 02.3270.3300